

XIV. 스웨덴의 문화 정책

1. 스웨덴의 하지 축제(Midsommaren)

1) 하지축제란?

(1) 기원

여름이 가장 긴 날인 하짓날을 기리는 하지축제는 바이킹 시대부터 시작하였으며 고대의 풍작 기원 의식에서 유래한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한 해 중 낮이 가장 긴 하짓날은 북유럽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수 탄생 6개월 전의 사도 요한의 탄생을 기리는 날로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2) 주 내용

북유럽사람들 에게 하지 축제는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크고 성대하게 축하하는 역사가 깊고 중요한 축제이다. 유럽 각 지역에서 하지 축제가 열리지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서 특히 더 성대하게 이 날을 기념한다.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쇠뿔로 만든 피리를 불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3) 시기

6월 19-25일 사이의 금요일부터 평균적으로 이틀에서 삼일 간 열린다.

하짓날(Midsommardagen)

하지 전날(Midsommarafton)

(4) 장소

도시에 있기보다는 교외지역으로 가서 가족 및 친척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 축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320Km 떨어져 있는 달라나(Darlana)지방의 실얀(Siljan)호수 근처.

(5) 의의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북유럽 사람들에게 하짓날은 해가 가장 긴 날로서, 여름의 해는 단순히 햇빛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축복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소중한 해가 가장 오래 떠 있는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2) 문화적 요소

(1) 하지 기둥(Midsommarstång)

들꽃과 자작나무 가지로 장식된 기둥으로, 마이스통 이라고도 불린다. 바이킹 시대부터 내려온 풍습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화관의 모양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것을 세움으로써 더욱 흥이 더해지고, 기둥을 세운 뒤에는 이 주위를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전통춤 추며 축제를 즐긴다. 아이들은 주로 '작은 개구리들(små grodorna)'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지 기둥 주위를 돌며 폴짝 폴짝 개구리처럼 뛰는 것 같은 춤을 춘다.

(2) 하지 축제의 전설

일곱 가지 다른 종류의 꽃을 꺾어서 베게 밑에 두고 자면 그날 밤 꿈에서 자기가 미래에 결혼 하게 될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

(3) 하지축제의 음식

- ① '헤링(Herring)'이라 불리는 발틱산 청어 절임과 햇감자(New potatoes).
- ② 보드카의 일종인 쉬납(schnapps):잔을 비면 새로 채울 때 마다 노래를 부르는 전통이 있다.
- ③ 후식으로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먹는다.

참고문헌

<http://blogs.sweden.se>

<http://www.sweden.se>

<http://www.sweeds.com>